

로컬라이프



군산 월명공원, 나눔길 조성 완료

군산시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보행약자의 월명공원 산책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자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는 산림청에서 시행한 '2016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 원을 지원받아 총 6억4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월명호수 일원 1km구간을 중심으로 황토평길 및 데크로드를 설치하고 목책합판과 낙우송 등을 식재해 산책로를 조성했다.

무장애 나눔길 조성이 완공됨에 따라 시민 누구나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요인을 제거해 편리하게 산책로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시, 특별감사 착수

군산시가 제199회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2016 군산시간여행축제 행사평가 용역자료 유출과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식 등'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문 시장은 최근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군산시 행사평가 용역자료 유출과 관련 등 일부 언론에 보도된 용역업무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감사를 실시했다.

군산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및 언론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적법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위법 부당한 사항의 실제규명에 주력할 방침이다.

/군산=문정근기자

익산시 '소라산 자연마당'

환경부 자연환경대상 상급 기부

익산 '소라산 자연마당'이 환경부와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가 주관하는 제16회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가운데 익산시가 상급 300만원을 소외계층에 기부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소라산 자연마당의 대상 수상의 기쁨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전하기 위해 상급을 기부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작은 상급이지만 대상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게 돼 이번 수상이 더욱 뜻 깊다"고 말했다.

한편 소라산 자연마당은 2015년에 준공되었으며 방치돼 있던 내대지와 소나무림에 생태숲을 복원하고 생태전시관 생태학습마당, 생태놀이터, 습지·물길 등 식지)와 산책로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끼고 호흡하는 공간으로 많이 찾고 있으며 아이들의 생태학습 체험장으로 이용하는 등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하림 익산시에 후원물품 전달

(주)하림(대표 이문용)이 익산시에 3,000만원 상당의 물품 후원을 이어오고 있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24일 오후 시청 시청실에서 열린 기탁식에서 이문용 대표는 하림에서 직접 생산한 가공식품을 전달했다.

이 후원물품은 익산시 행복나눔마켓·뱅크를 통해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이문용 대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과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찬은 시장은 "매년 지역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주)하림에 감사드리다.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주)하림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익산시에 3,0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이어오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전북도 시·군 의회 의장단협의회 익산서 열려

“고도보존 육성 특별법 마련을”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국비지원 건의안 등도 채택

전북도 시·군 의회 의장단협의회가 24일 익산에 위치한 세미나실에서 익산시의회(의장 소병훈)주관으로 김명지 협의회장을 비롯한 시·군 의장단과 정현을 익산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익산고도보존지구'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비지원 건의안과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국비지원 건의안, '서부내륙고속도로(평택~부여~익산)동시착공 건의안', '불법 지정폐기물 매립 대책마련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주된 제안 이유는 정부가 지난 2004년 익산시 금마면 일원을 고도보존지구로 지정하여 고도보존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충분한 재원조달이 되지 않아 활력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말하고 대통령 공약사업인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추진을 위한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 전북지역 기반시설 미흡으로 미분양 산업용지 증가로 지역경제 침체 및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기반시설 확충으로 산업단지 분양용지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의했다.

이율라, 국토건설부에서 서부 내륙 지역의 발전과 서해안 및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 분담하기 위해 민자투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서부내륙고속도로(평택~부여~익산)를 경기·충청권과 경강권을 선 추진하고 사업 연장이 적은 전북권은 2단계 시공함에 2028년이 되어야 시공예정이라고 말하고 지역균형 발전지혜 및 지역소외감 초래를 해소하기 위해 전 구간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네 번째 건의안으로 지난 6월 환경부가 밝힌 바와 같이 지정폐기물의 시료를 조작하여 일반폐기물로 속이

고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의 채움재로 불법 매립하여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과 생존권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하고 환경부는 지정폐기물의 관리주체임을 직시하고 즉시 정밀조사와 각종 피해 실태를 점검하며 원상복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익산시의회 소병훈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라북도는 백제의 후예라는 공통점으로 선조들의 우수한 문화를 세계적인 가치로 계승발전 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미래 세대는 우수한 문화유산이 장래에 훌륭한 자산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고 "대한민국 12번째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익산시의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을 전라북도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지역공동체 인식이 고양될 수 있도록 시군의장단 협의회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마련 나서

공직자·유관기관·단체 중심 소비촉진 운동 펼쳐

군산시가 현대중공업 사태 등으로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경기 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탁금지법 시행과 조선경기 침체로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사태까지 겹치며 소비심리 위축이 전체적인 내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군산시는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됨에 따라 공직자를 비롯해 유관기관 및 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촉진 운동을 펼쳐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산시는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지역상권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그동안 매월 두 번째 금요일 시행하던 청년 구내식당 휴무제를 다음달부터는 매주 금요일로 확대 실시한다.

특히 경제한국 소속 직원들은 불황의 여파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소용동과 오식도동 등 산단 주변을 중심으로 도시를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 직원이 동참할 방침이다.

청내 직원들이 지역 식당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소비창출 효과는 연간 2억700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온누리 상품권 구입 등 공직자 소비촉진 운동 확대를 다양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군산시 공무원노동조합 김상운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기 탓에 직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시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기 위해 동참을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정진수 군산시 지역경제과장은 "현재 군산의 경제는 여타박빙(如履薄氷) 형세로 공직자의 소비촉진 운동을 통해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해경,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폐선처리

불법조업 혐의로 몰수 처분된 중국어선의 폐선처리가 진행 중이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장인식)는 24일 불법조업 혐의로 몰수판결을 받은 중국어선 '노위고어80300' 호(154톤, 철선)에 대한 폐선조전부 공개매각 절차가 마무리되고 28일부터 낙찰업체가 선박 해체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노위고어 호는 지난해 12월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돼 지난 6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선박 몰수 판결을 받았으며, 9월 항소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해경은 공개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매각조건에 폐선처리를 명시했다.

불법조업 사실만으로 선박에 대한 몰수판결을 받은 것은 이례적이지만 폐선을 조건으로 공개 매각하고 폐선 처리된 사례는 해경 역사상 첫 번째로 기록될 예정으로, 해경이 불법조업



중국어선 근절을 위해 조지의 시합을 걸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군산해경 장인식 서장은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앞으로도 강력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며 "한·중 어업협정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면 선박이 폐선

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선박을 나탈 받은 전남 무안의 폐선처리업체는 앞으로 20일간 전체를 해체한 후 고철만 분류해 별도 매각을 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분회의 부의안건 의결·추경예산안 상정

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가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분회의를 열고 24건의 부의안건 의결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다.

시의회는 지난 15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감사 기간 동안 접수된 9건의 시민제보 및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 개선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등 내실 있는 사무 감사를 펼쳤다.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총 208건을 지적하고 이 가운데 시정조치 요구 75건, 대책마련요구 122건, 건의 6건으로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사항에 대해 반드시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24일 열린 제2차 분회에서 군산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등 24건 중 원안가결 18건, 수정가결 5건, 부결 1건을 의결했다.

또 올해를 마무리 하는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2회 추경 1조 186억5000만 원 보다 265억2000만 원 증액된 1조 451억7000만 원으로 법정·의무 경비 부족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예산 및 주민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현안사업 예산이 상정됐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이 오는 30일 제3차 분회의 결산추경 예산안 의결을 거쳐 확정될 경우 2016년도 군산시 총 예산규모는 1조 451억70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시 민원봉사과 박명화 주무관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법원행정처장상 수상



군산시 민원봉사과 소속 박명화 주무관이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혁신적인 공을 세운 것으로 인정받아 법원행정처로부터 '법원행정처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에서 민원봉사과 박은정

주무관 옥서민 검정현 계장이 각각 '법원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명화 주무관은 뛰어난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위 변조된 등록사항을 증명서를 발견하는 등 가족관계등록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추천에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수상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의욕과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됐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기자



국제로타리3670지구·이리동로타리클럽 익산지역아동센터연합회 음향기기 일체 기증

국제로타리3670지구 이리동로타리클럽(회장 성문 소재봉 이하 동로타리)이 익산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음향기기 일체를 기증하며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해 주었다.

지난 22일 동로타리는 익산지역아동센터연합회를 직접 방문해 지구보조금 전달식을 갖고 나눔을 실천했다. 재능나눔 음악회가 4년째 지속되었지만 음향시스템(5백만원정도)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나눔으로 인해 아이들이 센터에서 배우고 익힌 것들을 마음껏 재능기부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

소재봉 회장은 "익산지역아동센터

연합회가 재능나눔 음악회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김혁중 회장을 통해 접하고 이번 나눔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좋은 취지로 나눔을 실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뿌듯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익산지역아동센터연합회 김혁중 회장은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신 동로타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번에 후원해 주신 음향기기 일체들로 열심히 각종 공연과 재능기부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익산을 만드는 데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교사 50명 공개채용

군산시 드림스타트가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할 아동복지교사(지역사회복지사 전일제 및 단시간제) 50명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은 기본분야(아동지도, 기초영어, 독서지도, 예체능활동) 48명, 특화분야(지역사회복지사) 2명을 선별할 예정이다.

특히 취약계층인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이하),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고령자(만55세 이상),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서비스 일자리 제

공을 위해 우대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30일 저녁 6시까지 군산시드림스타트에서 방문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하다.

선발과정은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중순 군산시 홈페이지(http://www.gnsn.gokr)를 통해 공고한 예정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문정근기자